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 2025. 12. 5.(금) 10시

2026년도 재외동포청 예산 1,127억원 확정

- 2025년 예산 대비 57억(+5.3%) 증액

□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예산이 총 1,12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.

○ 이는 2025년도 본예산(1,071억원) 대비 56억원(+5.3%) 증가한 규모이다.

* 재외동포청 예산 추이 : ('24) 1,067 → ('25) 1,071 → ('26) 1,127 (단위: 억원)

-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'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' (+25억원), '대륙별 한인회장대회' (+3억원), '지역별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' (+3억원) 등 8개 사업이 추가로 반영되어, 정부안 1,092억원 대비 총 35억원이 증액됐다.

○ 이번 증액은 재외동포청이 동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동포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

□ 재외동포청은 2026년 예산을 국정과제 이행에 중점을 두고, ▲귀환동포 지원 강화 ▲세계한인 네트워크 재편 ▲차세대 정체성 교육 강화 ▲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등 핵심 사업을 증액·편성했다.

① 귀환동포 지원 강화 : '정착 기반 확충의 원년'

○ (국내정착 지원)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의 협업 모델을 구축하여, 약 100만의 귀환동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,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 정비

- ✓ 지역별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: ('25) 6.9억원 → ('26) 9.6억원
- ✓ 국내정착 관련 민간단체 지원: ('25) 0.5억원 → ('26) 1.5억원

○ (동포청년인재 육성)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동포청년인재를 대상으로 패키지 지원 사업 본격화

- 동포청년을 국내로 유치하여 교육, 취업, 정주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, 지역 특화형 동포 인재로 성장시키고 국가 경쟁력 제고와 인구 활력 회복에 기여

- ✓ 동포청년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: ('26) 30.9억원 (신규)

② 세계한인 네트워크 재편 : ‘하나로 연결되는 글로벌 공동체’

○ (한인사회 조직화) 기존 세계한인회장대회 한계를 보완하여, 차세대, 경제인,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포를 포괄하는 신규 통합행사로서 ‘세계한인대회’를 신설하여 글로벌 한인 협력망을 전략적으로 재구성

- 2026년에는 ‘대륙별 한인회장 대회’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어 해외 지역별 한인사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적극 지원

- ✓ 대륙별 한인회장대회 : ('26) 3억원 (신규)

○ (순회영사 활동 지원 강화) 재외공관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관 방문이 어려운 재외동포 대상으로 공관 영사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영사 서비스 제공 확대

- ✓ 순회영사 활동 지원: ('25) 7.7억원 → ('26) 8.2억원

③ 차세대 동포 한인 정체성 교육 강화: ‘언어·문화 기반의 미래세대 육성’

- (한글학교 지원 강화) 차세대 동포들의 한국어 및 한인 정체성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글학교의 교육 기반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
- 현재 한글학교 운영비(교사 수당, 학습환경 개선)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

✓ 한글학교 역량강화: (‘25) 186억원 → (‘26) 195억원

④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: ‘책임·기억·예우의 정책화’

- (사할린동포 지원)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게 역사적으로 희생·헌신한 재외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
-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들의 국내 영주귀국과 정착지원 사업을 내실화*하고, 사할린동포 2·3세 모국 방문 지속 추진
- * 「사할린동포법」 개정(‘24.1월)에 따른 동반가족 범위 확대(직계비속 1명 → 모든 자녀)
- 그 동안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「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」 일부 예산을 2026년부터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하여 종합적·체계적인 사업 추진

✓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: (‘26) 78억원(76.5억 재외동포청 이관, 1.5억 증액)

- (역사 보존) 한-우즈베키스탄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정주 90주년인 ‘27년 내 개관을 목표로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

✓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(공사비·감리비 등): (‘25) 3.5억원 → (‘26) 25.3억원

⑤ 디지털 행정기반 강화: ‘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’

- 「사이버 안보 업무규정」(대통령령)에 의거, 동포청 내에 보안관제센터(신규, 27억 원)를 신설
-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 마련

✓ 보안관제센터 구축: ('26) 27억원(신규)

□ 재외동포청은 2026년 확정된 예산을 투명하고 내실있게 집행함으로써 동포 사회의 핵심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.

- 아울러, “더 가까이, 더 따뜻하게, 더 신뢰받는” 동포 정책을 구현하고, 동포사회가 처한 현안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답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기획재정담당관실	책임자	과장	홍명화	032-585-3128
		담당자	사무관	방선희	032-585-3130

